

辨理士會, 韓·日工所權세미나

리셉션 11월 6일, 세미나 7일 등 日程 확정

韓·日 辨理士會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미나 등의 일정이 확정되었다.

韓·日 辨理士會가 매년 격년으로 상호 방문하여 양국 工業所有權制度를 이해하고 우의를 도모하기 위해 열리는 韓·日 工業所有權 세미나는 오는 11월 7日로 확정되고, 리셉션은 6日로 확정되었다.

大韓辨理士會가 초청하고 日本辨理士會가 방한하여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6日에 유관기관도 방문하며, 8日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촌 등을 관광할 예정으로 있다.

그 계획은 다음과 같다.

<11월 5日>

日本변리사 김포공항 도착.

<11월 6日>

特許廳, 大韓辨理士會 등을 방문하고 하오에는 롯데호텔 2층 에머럴드 룸에서 양국 辨理士와 관계인사가 참석하는 가운데 大韓辨理士會 주최 日本辨理士환영 리셉션 개최.

<11월 7日>

發明은 富의 源泉

國力の 바탕

상오에 롯데호텔 2층 에머럴드룸에서 「양국의 최근 법률개정과 금후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

<11월 8日>

상오에 민속촌, 올림픽 주경

기장, 국립박물관 등의 관광.

하오에는 日本辨理士와 韓國辨理士會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日本辨理士會주최 답례회를 롯데 호텔 2층 사파이어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口頭審理참석자 등 범위결정

代理人的 選任은 特別授權 있는 者만

特許廳 審判所는 원활한 審判의 進行을 위해 特許審判의 口頭審理에 참석, 陳述할수 있는 範圍를 명확히 규정했다.

特許廳에 따르면 口頭審理에서 辯論·證言할 수 있는 者를 ▲당사자(請求人 또는 被請求人) ▲參加人으로 결정된 者 ▲訴訟代理人 ▲特許管理人 ▲기타 審判部의 召喚을 받은 者가 될 수 있다.

또 代理人的 選任은 특별수권이 있는 者만이 辯論이 가능하며 複代理人이 다시 複代理人을 選任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法人의 경우도 당사자인 代表理事가 자기를 대신하여 소속직원을 出席·辯論케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關係人과 關心있는 者가 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다.

불우돕기 誠金

特許廳 婦女會 전달

特許廳 婦女會(회장 金東蓮)는 지난 9월 16日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1일 차집으로 모금한 2백 37만 2천8백원을 서울시 江南구 內谷동 시립 아동병원 정박아보호실, 江南구청 관내 영세민 8가구, 廳內일용잡급직 10名, 議政府보육원 등에 각각 전달했다.

本會 人事

總務課長 方健錫(前 研修課長), 研修課長 吳榮煥(前 總務課長). 이상 86年 10月 1日字 (㉟)